

2024.09.30.(월) 증권사리포트

필옵틱스

유리기판에서 주목받는 이유!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유리기판에서 주목받는 이유

AI시대 진입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 및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기존 소재(유기, 실리콘)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재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리기판의 필요성 및 시장진출과 관련된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동사는 1)국내 디스플레이 고객사향으로 LLO(Laser Lift Off)와 Laser Cutting 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Laser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리기판에 대한 가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2)타 레이저 기술 보유 기업과 비교시 TGV 등 유리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3)이를 통해 이미 국내외 기업 대상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하반기 실적 성장이 예정된 본업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6.4% 역성장했다. OLED 매출액 감소가 주 원인이었다. 하지만 하반기 디스플레이 관련 매출액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5월에 수주한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 관련 매출인식이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OLED이 적용되는 제품이 TV와 스마트폰 위주에서 최근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OLED 투자 발표 및 계획이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외 디스플레이 장비 성장이 기대된다.

안정적 실적 성장과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자회사 필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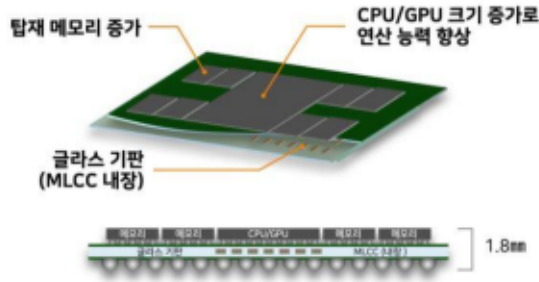
필에너지는 기수주된 장비들의 매출 인식으로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세대 2차전지 중 원통형 4600와인더, 전고체 배터리향 스택킹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실적 성장성과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1,889	2,308	3,040	3,562
영업이익	18	-105	181	140
지배순이익	46	-43	18	-88
PER	50.5	-57.4	102.2	-24.1
PBR	2.8	2.7	1.9	1.3
EV/EBITDA	34.3	-81.4	12.7	16.3
ROE	6.2	-4.6	1.8	-6.6

[그림 1] 유리기판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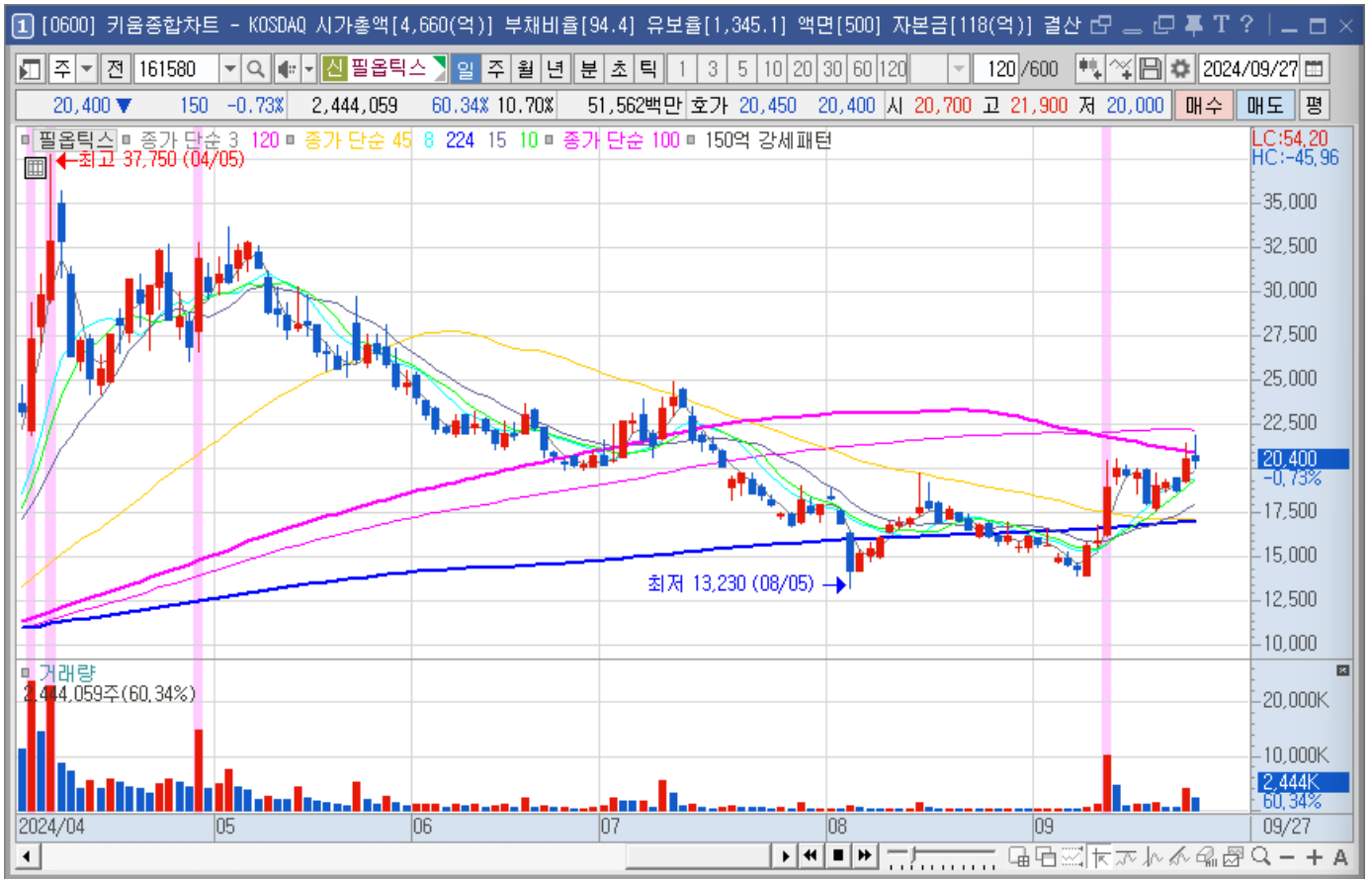
자료: SK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TSMC의 CoWoS-R 대비 3.7 배 칩 탑재량이 많은 조자이텍 유리기판

	TSMC(2024)	Georgie Tech(2024)
TYPE	Interposer+Organic substrate	Glass core substrate
SIZE	66mm X 68mm 97mmX95mm(Sub)	100mm X 100mm(Sub)
SOC Size	32mm X 21mm	20mm X 19mm
Total chips	16ea(4 SOC, 12HBM)	60ea(6 GPU, 54HBM)

자료: 조자이텍,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콜마비엔에이치

진정한 밸류업은 실적 개선 이후에

[출처] 상상인증권 김혜미 애널리스트

밸류업 지수 편입 호재에도 실적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

콜마비엔에이치는 한국거래소가 9/24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튿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뉴스가 보도되는 등 호재성 소식에 힘입어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세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까지 매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및 해외 성장률이 주춤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 완만한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종 3공장(23년 11월 완공)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증가와 화장품 비중 확대에 따른 매출 mix 악화, 광고비 증가 영향 등의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점을 상기하면, 하반기 마진 레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연초 제시한 수준의 연간 영업이익 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3Q24E 연결 실적으로는 매출액 1,424억원(yoy +2.1%), 영업이익 63억원(yoy -7.8%)을 전망한다. 식품 부문에서 국내 소비 경기가 지속 부진함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내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이다. 1위 고객사 애틀러미의 턴어라운드가 지연되는 가운데, 매출 성장을 주도했던 비애틀러미향 ODM 수주도 상반기 대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화장품 부문이 성장하며 전체 매출을 방어하고 있으나, 마진 mix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밖에 중국 자회사 강소콜마 역시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가 현지 영업상의 문제로 6월부터 신규 발주를 잠정 중단해 사업 목표치 하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및 목표주가 24,000 -> 20,000 원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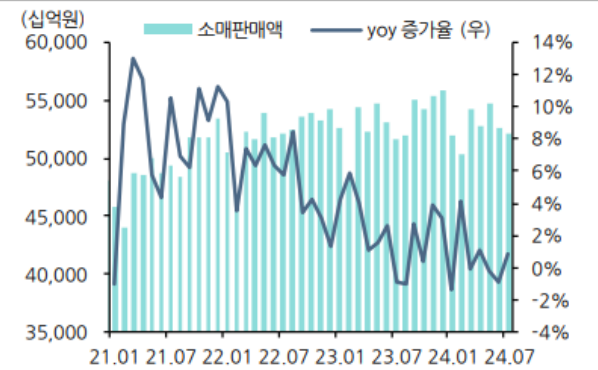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 무엇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및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외를 중심으로 한 매출처 다변화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의 확보 노력이 결과로 증명될 때까지 당분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576	61	41	1,371	20.6	11.8	2.1	10.3	1.1
2023	580	30	20	667	26.9	13.9	1.3	4.9	1.7
2024E	626	29	19	657	23.2	12.5	1.1	4.8	2.0
2025E	673	30	20	693	22.0	12.5	1.1	4.9	2.0
2026E	723	41	29	1,006	15.2	10.4	1.0	6.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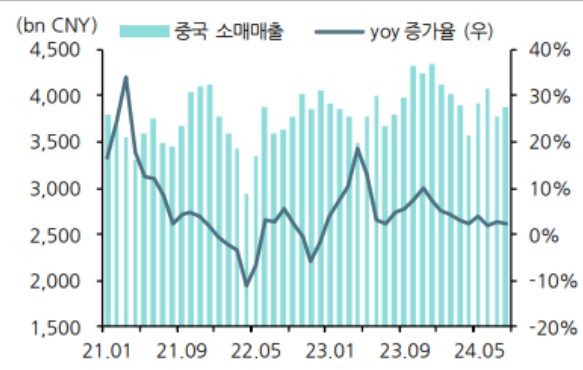
자료: K-IFRS연결기준,상상인증권

그림 1. 국내 소매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KB금융

중요하 것으 지수 편입 여부가 아니라 주주환위를 확대 폭
[출처] 하나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

일본 밸류업 지수 미편입에도 주가가 급등한 일본 은행주 사례를 되새겨 봐야 할 때
KB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0,000원을 유지. KB금융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편입이 무산
되면서 최근 주가변동성이 확대 중. 그러나 밸류업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수 편입 여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향후 주주환원율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의미있는 폭으로 확대될 지의 여부일 것임.
일본 밸류업 지수인 JPX Prime 150 지수에 일본 은행주들이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23년 3월
일본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일본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총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리면서 일본 대형은행인 MUFG와 SMFG 주가가 평균 80% 추가 상승해 Nikkei
225 지수 상승 폭 42.1%와 JPX Prime 150 지수 상승 폭 14.9%(설정일 이후)를 크게 초과상승하고 있는
사례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판단. 일본 두 은행의 평균 PBR은 현재 0.8배를 상회하고 있는데 KB금융은
연초 이후 주가가 50% 상승했지만 여전히 PBR은 0.5배 내외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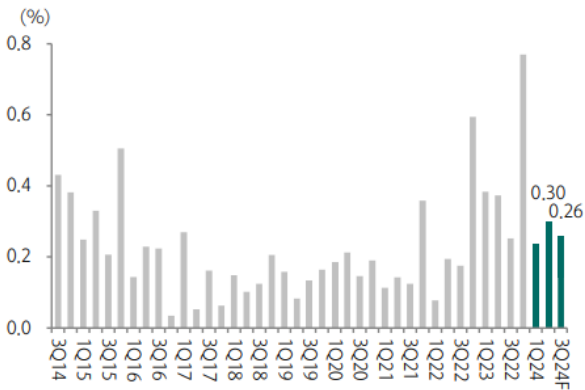
기대되는 밸류업 공시. 명시적 주주환원율 제시보다는 상단이 열려 있는 방안일 듯
동사는 10월 24일 3분기 실적 발표시에 밸류업 공시를 병행할 예정. 대부분의 은행들이 언제까지의 기
간 내에 총주주환원율을 45~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명시적 주주환원율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KB금
융은 프레임과 로직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이 충족될 경우 주주환원율이 단기간에 50%를 크게 상
회할 수도 있는 상단이 열려있는 방안일 것으로 예상. 주요 프레임은 RWA 관리(이에 따른 CET 1 비율
상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명목 자산성장률보다 RWA 증가율을 크게 낮출 수 있
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 금번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이 무산되면서 계획보다 더 전향적으로 주
주환원율 확대를 도모할 공산도 커졌음. 시장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

3분기 추정 순익은 약 1.55조원. 보험 관련 일회성 비용 요인 600억원 발생 전망
3분기 추정 순익은 약 1.5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손보 희망퇴직비용 300억원과 식품회사 대형화재에 따른 보상비용 300억원 등 손보에서 총 600억원 내
외의 일회성 비용 요인 발생 전망. 1) 3분기 대출성장률은 약 3%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고른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2) NIM은 약 8~9bp 하락해 마진 하락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다만 기업대출 금리 경쟁 등으로 NIM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부대거래에 따른 수수료이익 발생 등
에 따라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PF 등 추가 총당금 적립 요인이 거의 없
어 그룹대손비용은 약 4,900억원 내외로 전분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2분기 그룹 CET 1 비율은
13.59%였는데 성장률이 높았지만 가계대출은 RWA 가중치가 낮아 환율 하락 요인과 RWA 관리 노
력 등으로 3분기에도 CET 1 비율이 소폭이나마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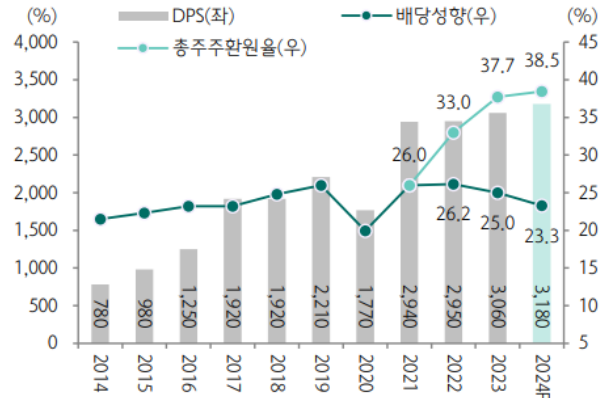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총영업이익	15,012.7	16,229.1	16,797.6	17,209.6
세전이익	5,795.6	6,170.4	6,861.4	7,594.1
지배순이익	4,394.8	4,631.9	5,049.4	5,588.2
EPS	10,748.0	11,640.2	12,983.8	14,369.0
(증감율)	1.4	8.3	11.5	10.7
수정BPS	120,366	145,996	156,008	166,427
DPS	2,950	3,060	3,180	3,550
PER	4.51	4.65	6.25	5.65
PBR	0.40	0.37	0.52	0.49
ROE	8.99	8.63	8.50	8.91
ROA	0.64	0.65	0.68	0.71
배당수익률	6.1	5.7	3.9	4.4

도표 6. KB금융 총자산대비 대손비용률 추이 및 전망



주: 총자산대비, 분기 기준, 분기 연율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7. KB금융 총주주환원율 추이 및 전망



주: 2024F 총주주환원율은 자사주 매입소각 7,200억원 반영
자료: 하나증권



코스맥스

중국 경기 부양 수혜 기대

[출처]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애널리스트

투자심리 개선, 주가 괴리 좁힐 기회

최근 2개월 중국법인 실적 우려로 인해 유사 기업 대비 동사 주가는 미진한 흐름. 2Q24에 이어 3Q24에도 중국 실적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 다만 중국이 경기부양 대응책 제시하며 당분간 통화 정책 완화 예고. 중국 내 로컬 기업들 대상으로 중장기 수요 회복, 투자 재개 등으로 중국법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소폭이나마 높아질 전망.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 유사 기업들과의 주가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

3Q24 Preview: 한국 중심 고성장, 중국과 미국은 보수적

3Q24 연결매출 5,374억원(+17%, 이하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438억원(+31%)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430억원)은 부합할 것으로 예상. 법인별로는 한국이 21%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 그 외 중국과 미국 생산법인 매출은 이전 분기와 유사하게 한 자리 내 역신장 했을 것으로 전망

한국법인의 경우, 직전 분기에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 부진했음. 한국과 미국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97억원(미국 30억원) 반영 때문. 3Q24에도 국내외법인 일부 고객사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발생이 예상되나, 통상적으로 3~4분기 충당금이 환입된 사례도 많아 실적 눈높이를 너무 낮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 경기를 이유로 회계법인의 자의적 판단 하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비율 상승. 다만 하반기부터 비용에 대한 베이스가 같아진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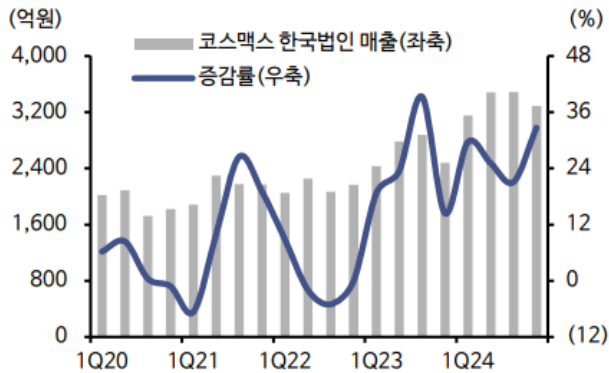
Valuation & Risk

2024년 이익 추정치는 소폭 하향되었으나, 중국 실적 회복 기대감을 감안해 2025년 실적 추정치는 유지. 주당순이익 변동폭 미미해 목표주가 유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2	1,600.1	53.1	20.8	40.3	3.6	1.4	10.1	0.0
2023	1,777.5	115.7	57.1	25.1	12.1	4.0	10.5	0.4
2024F	2,145.0	176.2	105.0	14.0	25.2	3.1	7.0	0.5
2025F	2,440.0	239.4	143.2	10.3	26.6	2.4	5.3	0.5
2026F	2,710.5	268.4	158.7	9.3	23.2	1.9	4.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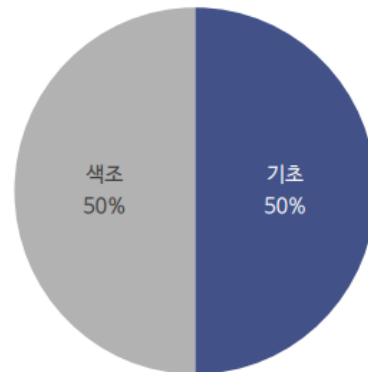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한국법인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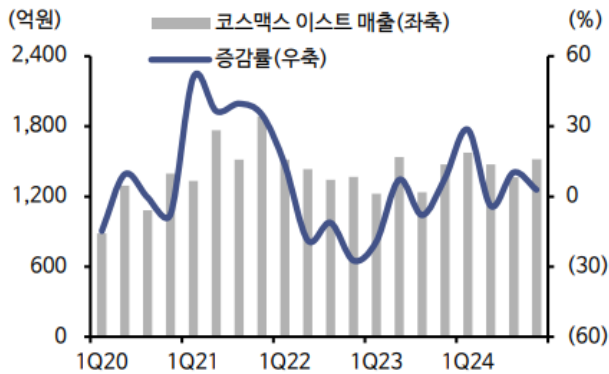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한국법인 기초와 색조 카테고리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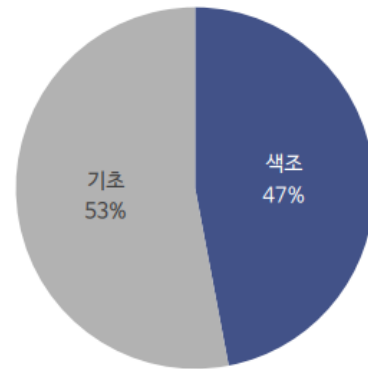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국 이스트법인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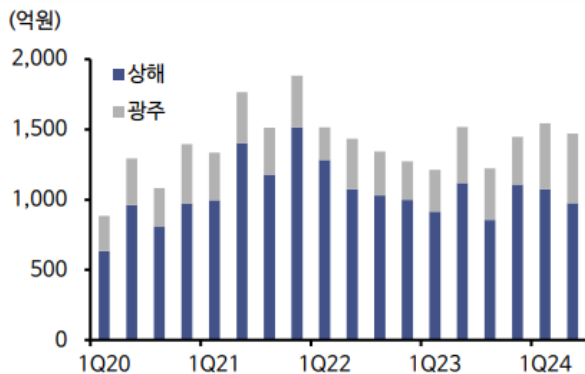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국 이스트법인 기초와 색조 카테고리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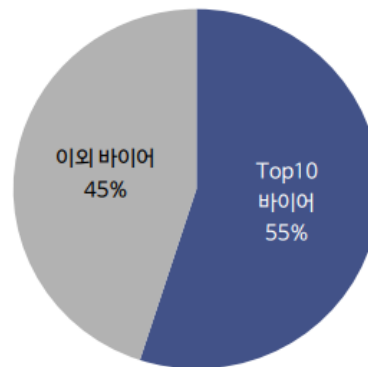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국 이스트법인 법인별 매출액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국 이스트법인 상위 고객사 비중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삼성E&A
 발주에 대한 보수적 전망으로 추정치 하향
 [출처] 하나증권 김승준 애널리스트

3Q24 추정치: 매출액 2.6조원, 영업이익 1,865억원(OPM 7.2%)

삼성EA 3Q24 매출액 2.6조원(+4.8%yoy), 영업이익 1,865억원(+21.5%yoy)으로 추정한다. 화공 GPM 11%, 비화공 GPM 13%로 추정했다. 화공부문은 2분기 실적발표 때 언급한 것과 같이, 추가적인 정산이익을 일부 반영할 것으로 추정했다. 3분기 수주는 1.2조원, 수주잔고는 22.6조원으로 추정한다. 3분기 화공 수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비화공부문도 계열사의 발주 지연 이슈를 일부 반영하여 추정했다.

추정치 하향 배경: 알루미늄PDHPP, 계열사 발주 지연

삼성EA의 2025~2026년 추정치를 하향한 배경에는 사우디 알루미늄 PDHPP의 경쟁입찰로의 전환과 계열사의 발주 지연 이슈를 반영했다. 사우디 알루미늄 PDHPP는 FEED를 당사가 수행하여 하반기 중 EPC로의 전환 수주(20억달러)를 기대했으나, 발주처의 경쟁입찰로의 전환으로 EPC 수주 가능성이 떨어졌다. 남은 것은 인도네시아 TPPI의 FEED to EPC 전환이지만, 최근 동남아의 발주 분위기를 보건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수소의 경우, 사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반영하여 말레이시아 하이비스커스 EPC의 발주도 지연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화공 수주 추정치를 하향함에 따라 25~26년 화공 매출액 추정치를 하향했다. 비화공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P4 Ph2~ph4와 테일러2공장의 착공 계획이 재검토되면서 발주가 보류되었다는 뉴스를 반영하여 비화공 수주 추정치를 하향했다. P4의 착공 지연은 결국 P5의 발주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전반적인 수주 추정치를 하향했다. 이에 따라 비화공의 2025년 추정치를 하향했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30,000원으로 하향

삼성EA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36,000원에서 30,000원으로 16.7%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24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8.0배를 적용했다. 목표주가는 향후 계열사의 발주 분위기, 동남아 및 중동의 발주 분위기, 수소 관련 발주 가능성 여부에 따라 상향의 여지가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0,054.3	10,624.9	9,939.1	10,403.7	
영업이익	702.9	993.1	843.2	677.9	
세전이익	715.7	932.6	863.7	699.7	
순이익	664.9	753.8	737.3	516.0	
EPS	3,392	3,846	3,762	2,633	
증감율	78.53	13.38	(2.18)	(30.01)	
PER	6.56	7.54	6.42	9.17	
PBR	1.62	1.64	1.11	0.99	
EV/EBITDA	3.20	3.90	2.54	2.43	
ROE	28.32	24.45	19.04	11.39	
BPS	13,741	17,721	21,791	24,423	
DPS	0	0	0	0	



마이크로디지털
 바이오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진화
 [출처] IBK투자증권 이건재 애널리스트
 월요일 공시가 갖는 의미

동사는 이번주 월요일 동사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Single-Use Bioreactor System(리액터 + 3D백)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실시함. 금번 계약 상대방은 북미를 기반으로 둔 신규 고객사로 글로벌 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내 소부장 대기업인 것으로 추측됨. 이번 공급 계약은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장비가 글로벌리 가장 큰 북미 시장으로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최근 빅스텝 금리인하와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통과로 국내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북미 지역 진출 레퍼런스는 동사의 향후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 전망됨.

북미 레퍼런스로 글로벌 진출 급행 티켓 확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북미, 유럽지역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아시아 지역은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능력이 성장하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분야는 몇몇 키 플레이어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수직 계열화해 신규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음. 글로벌 바이오 산업 성장과 아시아 지역 바이오 의약품 생산 확대에 따라 신규 소부장 플레이어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신규 진출 기업은 <필드테스트 값>과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사는 이번에 확보한 북미 레퍼런스가 글로벌 진출 마중물이 되어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7,000원을 신규 제시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7,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였고 9/25일 종가 대비 79.2%의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9	11	14	31	47
영업이익	-8	1	2	12	21
세전이익	-9	1	3	10	18
당기순이익	-9	1	3	8	15
EPS(원)	-607	38	184	486	879
증가율(%)	17.2	-106.2	388.7	164.2	80.7
영업이익률(%)	-88.9	9.1	14.3	38.7	44.7
순이익률(%)	-100.0	9.1	21.4	25.8	31.9
ROE(%)	-104.5	8.3	20.0	33.3	41.0
PER	-5.7	189.0	81.8	31.0	17.1
PBR	9.8	12.8	12.4	8.8	5.8
EV/EBITDA	-7.5	41.2	66.1	16.5	9.1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2. 마이크로 디지털 제품 라인업



자료: 마이크로디지털, IBK투자증권



심텍
전방산업 수요 둔화 지속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전방산업 수요 둔화 고려해 목표주가 하향

최근 스마트폰, PC 등 IT 세트 수요 둔화를 고려해 동사 실적 전망을 낮추고 목표주가를 기존 31,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향. 하지만 이익 개선 방향성이 유지된다는 점 고려해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 밸류에이션은 기존 2025년 PER 13배 적용

스마트폰과 PC는 AI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소비 둔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수요 회복 트렌드는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나 단기적으로는 북미 스마트폰 신모델 판매 부진, 중화권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PC 회복 지연 영향 불가피

동사 2024년 영업이익은 71억원(흑전 y-y), 2025년 영업이익은 637억원(+802.4% y-y)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25년 영업이익은 전방 수요회복이 기존 추정정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전 전망대비 24.2% 하향

본격적인 이익 회복은 2025년 하반기 전망

동사 3분기 영업이익으로 94억원(흑전 y-y) 수준을 전망. 예상보다 전방산업 수요 회복 및 반도체 출하량 증가세가 더디고 원달러 환율 하락도 부정적

4분기에도 북미 세트업체 신제품 수요 둔화와 PC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3분기와 유사한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 본격적인 업황 회복은 2025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이미 주가가 상단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1,042	1,229	1,350	1,448
증감률	-38.6	18.0	9.8	7.3
영업이익	-88	7	64	75
증감률	적전	흑전	802.4	17.6
영업이익률	-8.5	0.6	4.7	5.2
(지배지분)순이익	-115	-20	61	63
EPS	-3,606	-624	1,907	1,983
증감률	적전	적지	흑전	4.0
PER	N/A	N/A	9.8	9.4
PBR	2.6	1.3	1.2	1.1
EV/EBITDA	N/A	8.4	4.6	3.8
ROE	-21.3	-4.4	12.9	12.0
부채비율	150.0	162.2	147.7	135.5
순차입금	191	184	116	44

단위: 십억원, %, 원, 배



19,620 ▲ 30 +0.15% 124,844 56.94% 0.39% 2,458백만 호가 19,630 19,620 시 19,710 고 19,930 저 19,380 매수 매도 평

